



이재연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전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빈곤아동도 공평하게 출발하기 위하여

빈곤은 어느 시대에서나 있었던 오래된 문제이자, 어느 사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음에도 빈곤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다. 빈곤의 문제가 먹거리와 위생, 주거, 교육, 정보가 포함된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박탈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살아가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고통을 안겨주는가 하면, 의사결정과정과 사회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가 부족해서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의 문제도 야기시킨다.

빈곤한 상황에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거나 혹은 빈곤한 형편에 있는 부모나 성인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아동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빈곤아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때 아동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권의 침해뿐 아니라 앞으로 공평한 출발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갓 태어난 아기의 탄생에서 보았던 기쁨과 아기가 가지고 태어난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가난 속에 신음하면서 그리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아동이 경험하는 빈곤은 성인이 경험하는 것과 다른 면이 있다. 즉 빈곤의 폐해는 성인보다 아동에게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 아주 어린 시절, 특히 태어나서 처음 몇 년 동안의 시기는 개인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아주 중요하므로 아동기의 빈곤은 평생 동안 장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빈곤은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발달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물질과 공공서비스를 빼앗아감으로써 어린 시절을 통째로 위협에 빠뜨릴 수 있어 생존과 발달권의 문제를 야기한다. 빈곤한 가정의 아동은 얼마 되지 않은 가격의 약과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에 희생될 수도 있다.

빈곤아동은 제대로 보호받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빈곤한 가정과 지역사회는 아동을 보호할 능력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빈곤은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서 아동을 보

호하는 가정과 지역사회를 손상시킨다. 따라서 아동을 착취와 학대, 폭력, 차별, 따돌림 등의 각종 위협에 노출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아동빈곤은 아동을 보호하는 안전망의 붕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보건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가정에서나 또래관계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아동기 빈곤은 아동의 생존을 위협하고 신체 정신적인 면에 손상을 주어 아동의 미래를 부정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빈곤가정의 아동은 어른이 되어서도 빈곤하게 살게 되며, 다시 빈곤 속에서 자녀를 기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적인 빈곤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물질적으로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중요하다. 실제로 가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동은 상대적인 빈곤을 경험할 수 있다. 물질적인 수준이 어떠한가에 다른 아동과 같은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 아동은 상대적인 결핍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다. 상대적인 결핍도 아동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빠른 경제성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빈부격차는 우려할 사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27조 1항에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2항에서는 “부모 또는 아동을 책임지는 보호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조성할 일차적 책임을” 밝히고, 3항은 “부모나 아동을 책임지는 보호자가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해 물질적 지원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포함한 국가의 책임을 잘 하게 하기 위하여 유엔에서는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 근거하여 밀레니엄 개발목표(UN Millenium Development Goal: MDG)를 설정하였다. 즉 2015년까지 8개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국가 정상들이 채택하였는데 그중 첫 번째 목표가 ‘빈곤퇴치’이다. 이러한 MD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나 이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자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동에 대한 투자는 인간개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국가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부는 빈곤아동에 대한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한다는 목표로 2007년도부터 ‘희망스타트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서 투표권도 없고, 로비를 하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 말할 줄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발달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혜택과 각종 보호와 기회에 대한 권리를 누려서 공평한 출발기회를 가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미국의 아동보호 전문 기관인 아동보호 기금(Children's Defense Fund)이 벌리고 있는 아동빈곤퇴치 프로그램, 일명 ‘요람에서 감옥으로의 경로차단’(Crade to Prison Pipeline Campaign) 캠페인을 눈여겨보면서 탈이동빈곤을 위해 모든 사람들의 역할을 새겨보았으면 한다.